

익산시 일자리 정책 빛났다

농식품분야 결합대규모투자 지속...고용률 ↑ · 실업률 ↓

익산시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고용률 상승이라는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며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익산시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고용률 상승이라는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고용률 63%로 지난해 대비 1.8%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3%에서 1%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예산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시 일자리 예산은 지난 2019년 607억원에서 지난해 1,60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자리 수는 같은 기간 1만2,639명에서 2만8,000명으로 약 65% 늘었다.

다이로움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 청년, 신중년, 노인 등 각 계층 21개 분야 121개 사업에 일자리를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유지와 경제 회복에 공헌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농식품 분야 상생모델인 '익산형 일자리'를 본격화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과 식품이 결합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난 3년간 관내 향토 대기업인 하림그룹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익산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과 식품이 결합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난 3년간 관내 향토 대기업인 하림그룹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익산시의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참여 주체의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노·농·사·민·정의 다양한 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기업 대표인 하림그룹은 국가식품물류센터와 제4산업단지에서 5년간 3천700억원을 투자하고 63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한다.

시는 지난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 조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곳은 기존 익산청년센터 '정숲'의 기능을 확대해 청년자의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인테리어 등 창업 초기 비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 수당 지급(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뿐 아니라 문화와 복지 분야를 포함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도내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상을 개점하여 판로확보 기반을 제공했으며 4000세대의 전문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정책 수립 연구영역을 통해 지역 산업과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과 특성을 파악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보훈단체장 및 모범 국가유공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호국보훈에 감사의 마음 전달'

군산시, 보훈단체장 · 모범 국가유공자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3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보훈단체장 및 모범 국가유공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위로로 전하고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훈단체 발전 및 시 보훈 사업 보훈시설 지원봉사 등에 기여한 모범 국가유공자 8명에 대해 군산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뒤로 한 채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본받고, 군산시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예우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 확산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군산시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세 달간 여름나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을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정에 여름이불, 쿨매트 등을 지원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올해로 11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3,868세대에 1억6,80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후원품을 전달했다.

지역주민, 단체, 기업 등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청·주민센터에 성금(품)을 기탁할 수 있고 일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탁된 성금(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여성새로일하기부 '장관상' 수상 쾌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정부로부터 여성들의 취·창업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3일 새일센터는 서울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제11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 포상식'에서 최고상인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취업 성과,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과 종사자를 선발했으며, 익산새일센터는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새일센터는 취업상담,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직업교육훈련 8개 과정을 실시해 151명의 수요생을 배출하였으며, (주)하림산업 등 익산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2천37명의 취업을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주)하림산업(대표 김기만)이 새일센터와 협력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익산시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농산물 신관로를 개척하고 있다. 시는 22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재)한국우면진흥원과 함께 익산 토마토 축제 Live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방울토마토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됐으며, 우체국쇼핑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익산시 망성면에서 생산된 대추방울토마토를 Live특가상품으로 구성해 판매했다.

맛갈 인증 이벤트 등 적극적인 라이브 방송 활용으로 1시간 동안 준비물량 총 1,500박스가 완판됐으며 약 1,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오는 7월에는 (재)한국우면진흥원과 함께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차례 더 진행해 또다시 완판 사냥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가 판로 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에 익산시 전용 '다이로움'



익산시, 다이로움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브랜드관을 개설해 상시 노출을 통해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메인 배너 광고란에 노출해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산물 판매에 합인쿠폰 프로모션 적용과 201만명에 달하는 우체국쇼핑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 PUSH·이메일을 발송하고, 우체국쇼핑이 자체 운영중인 SNS 계정을 활용한 홍보 및 오픈마켓과 연계한 익산시 농산물 노출 극대화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 특별교부세 3000만원 지원 받아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6개 분야에 최종 90개 사업을 선

정해 총 28억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시 불안전ZERO 여성 1인생활 지원사업'은 여성 1인점포 안심벨 설치사업'과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는 물론 범죄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1인점포 안심벨설치사업'은 1인점포 특성상 외부노출이 쉽고 위험

한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한 여성들을 범죄와 사건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은 여성대상 디지털범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영구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주민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동네문화카페 '온가족, 온누리' 시작

군산시는 동네문화카페 시즌 II, 가족 동네문화카페 '온가족, 온누리' 사업으로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가족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가족 동네문화카페 '온가족, 온누리' 사업은 동네문화카페를 다양한 세대, 계층별로 세분화, 확대해 소통이 단절

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4인 이상 모이면 원하는 시간, 상가에서 원하는 강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기존 동네문화카페와 진행 방식은 동일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